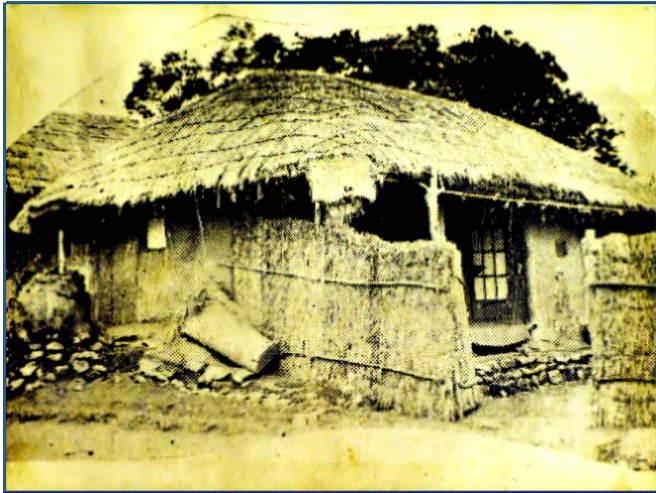


송암교회 말씀묵상

이 달의 사진 <소래교회>



1883년 5월 16일에 서상륜이
황해도 소래에 세운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

*서상륜(1849-1925)

- 최초 한글성경 번역한 개신교 선교사
- 한국교회 선교역사에 초석을 놓은 선구자

2022년 2월 28일(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찬송 28장

시편 1:1-6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1절)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대문과도 같습니다. 즉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중에서 다른 것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습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셨나요?

질문: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양식삼아 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3월 1일(화)

이삭의 축복

찬송 586장

창 27장 27-29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27:29b)

본문은 장자의 복에 대한 야곱의 집착과 이삭과 리브가의 각기 다른 자식 사랑의 편애가 만든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이삭의 축복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물질의 복과 권력의 복입니다. 그러나 창12장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만민에게 돌아갈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일제 강점의 핍박 아래서 일왕에게 복을 빌어준 신사참배는 교회역사의 치명적 오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오용하지 않도록 깊은 참회와 결단을 합시다.

질문: 하나님의 복을 내 것인 양 오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도: 주님! 나의 탐욕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만을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3월 2일(수)

티끌과 재 가운데

찬송 85장

욥기 42:1-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6절)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던져 그로 하여금 답, 즉 진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에 사로잡혀있던 욥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티끌과 재는 인간창조의 재료들입니다. 재의 수요일인 오늘 우리의 근원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나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기도: 주님, 우리의 근원을 생각함고 주님의 수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3월 3일(목)

아름다운 교제를 만드는 성령의 기름

찬송 221장

시편 133:1-3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2절)

오늘 시편의 저자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맺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데 제사장임명식 때 붓는 '기름'이 등장합니다. 기름은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불은 이기심, 욕심, 시기와 같은 나의 죄를 태웁니다. 성도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의'를 태울 보배로운 기름이 필요합니다. 움켜쥐고 있는 나의 죄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갑시다.

질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 주님! 한 몸 된 우리를 갈라놓고, 파괴하는 죄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아멘.

2022년 3월 4일(금)

입

찬송 23장

잠언 4:24

왜곡된 말을 네 입에서 없애 버리고 속이는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여라(24절)

바로 앞 구절 23절은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하며 입을 지키라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처럼 입의 말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이 먼저 휘어잡을 때면 순간 힘들어지는 게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게다가 말에는 위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말의 온도는 천차만별 다르게 뿜어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말이 주는 힘을 언제나 직시하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질문: 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려는 말의 온도는 현재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도: 주님, 왜곡된 말의 입을 다스려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2022년 3월 5일(토)

발

찬송 560장

잠언 4:26-27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26-27절)

잠언기자는 정해진 길 외의 좌,우길은 악한 길로 상정합니다.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실 지혜의 길을 가야합니다. 심지어 잠언기자는 갈 곳이 아닌 길은 발길조차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발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발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또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든든하게 다지시길 바랍니다.

질문: 내 마음의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2022년 3월 6일(주일)

공활을 원하시는 주님

찬송 279장

마태복음 9:9-13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13절)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듯한 모습일 때 받아주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온갖 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멜로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도 어떤 죄악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지금 시간을 내어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질문: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을 받아주실까요?

기도: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